6-1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

20C – 추상미술 탄생

추상미술이란? 재현,모방 할 줄 몰라서 그리는 것은 추상이 x.선사시대 메소포타미아 기하학적 무늬 고대 이집트 등을 추상이라 하지 않는다. 기법을 모르므로

Abstract(추출하다) 자연을 재현하는 것 대신에 인간의 감정 가시적인 것?을 그리는 것을 추상

16c 미켈란젤로 / 고딕(중세)시대 북부독일에서 출토된 작품

르네상스가 이상적, 아름답게 이상미를 만들어 나가던 시대. 주제는 동일(피에타). 왼쪽은 슬픔을 삼키면서 아름답고 고고하게 표현. 아들을 안고 있고, 전형적인 인간으로서 아주 아름다움 표현. (고상, 우아). 내적인 감정 표현하기 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이상적인 미로서 표현할 것인가 초점.

🡪남유럽 – 규범, 캐논, 원칙 발달

오른쪽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 슬픔을 참지 못해서 통곡하는 감정의 리얼함을 보여줌. 팔이나 다리에서 피 떨어지고, 목이 축 늘어져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과 어머니의 슬픔이 감정적으로 표현. 🡪북유럽 – 감정표현 적나라

칸딘스키 <최초의 추상화> 1910 // 최초의 추상회화. 자연을 재현하는 것 대신에 인간의 논리적인 사색, 이성적 사고, 사유작용을 표현하는 것이 추상. 칸딘스키 추상미술의 설립자, 창시자.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론적으로 추상미술의 이론을 만들어냄. 자신만의 사유, 사고작용을 그린 것 추상.

자연의 대상이 사라졌을 때 회화는 더욱 아름답다.

모네 <건초더미> / 칸딘스키 <최초의 추상화> 1910 // 15c초에 원근법, 명암법(인간성 회복위해).이 후 사실주의. 20c에 와서 인간성 회복을 꿈꾸며 추상에 도달. (역사는 돌지만 결코 만나지 않고 나선형으로 돈다.)

1. 칸딘스키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전시된 모네-<건초더미> 보고 얼마든지 자연을 재현하지 않고도 그림이 되겠구나 느낌. 2.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을 들으면서 종합예술을 꿈꿈.

3. 원자분열의 발견 – 칸딘스키 왈 이 사실을 알고 원자분열은 전세계의 분열과 같이 느껴진다.

🡪본질로의 탐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심오하고, 그 것을 탐구하는 것이 추상미술)

언제까지나 자연의 외형이나 베낄 수 없는 노릇.

1895년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본 모네 <건초더미>에서 추상의 가능성 깨달음.

바그너의 오레라, 로엔그린. 원자분열의 발견.

칸딘스키– 인간의 정신성과 내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것. 내적 필연성(내적으로 필수적인 예를 들어 감정(노여움, 기쁨, 분노……) 우리 정신세계의 모든 것 등). 🡪이를 표현하는 것이 추상.

모네 <건초더미: 눈의 느낌, 아침> 모네 <건초더미, 눈의 느낌, 흐린 날> // 공기로 나아가서 대기의 흐름을 포착 (모네의 목적). BUT 칸딘스키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그림이 될 수 있고, 대상이 추상이라는 것을 깨달음.

외형적 형태보다 내적 구조, 법칙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상 회화 개척. 1910년에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려면 정신적에 관한 것을 공부 많이 해야 한다. 화가는 그리는 기술(기법)을 익힌다기 보다, 화가는 지적 엘리트적이어야 한다는 개념 싹튼다.(엘리트주의적으로 바뀜)

칸딘스키는 ‘추상회화는 우연의 산물, 일시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고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

칸딘스키 <청기사 연감>의 표지 1911 / 마르크 <푸른 말> 1910-11

// 칸딘스키는 마르크와 함께 청기사 그룹을 만듦. 청기사 그룹은 1913년에 제 2의 전시회로 끝이 난다. 조직된 그룹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룹이기 때문. 추상미술을 발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개발. 미술가는 직관 개발해야 함. 칸딘스키 – 직관은 영혼의 목소리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공부를 해야 한다. 논리적인 이론을 알아야 한다.

아시아 미술 아프리카 미술 시 희곡 음악 철학 일본 목판화 중국 수묵화 등 전세계의 문화 예술에 관해 글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청기사 연감지에 개지. 2년간 활발히 연구.

마르크는 새로운 재단화를 필요로 한다. 재단화=종교. 종교는 정신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것. 그만큼 종교에 해당될 만큼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추상회화다.

칸딘스키 <인상파> 1911 // 음악회의 인상을 그림. 인상 : 첫눈에 본 감정.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듯한 무대를 보며 음악을 들음. 추상(ABSTRACT) : 무엇인가를 보고 내 감정, 본질을 추출하는 의미. 추상미술은 대상을 명확히 정해 관람객에 강요하지 않음. 추상미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추출, 해석, 생각을 하는 것은 관람객이다. 그래서 칸딘스키 왈, 추상미술은 은폐되어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침묵은 수다보다 더 힘을 갖는다.

칸딘스키 - 1910~1914년 까지 추상미술 개발. 칸딘스키는 인상-즉흥-구성 3단계로 발전시킴.

인상이라는 것은 받았을 때 첫 느낌. 느낌을 표현.

즉흥은 자동발생적인 감정, 감정의 충만함 표현.

추상미술의 완전한 도달은 구성. 감성과 이성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단계.

칸딘스키 <즉흥 19> , <구성v>

칸딘스키, <성인의 날> 1911 // 11월 11일 –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을 추모하는 날. 칸딘스키는 가장 추상에 도달할 수 있는 테마로 묵시록적인 테마 사용(노아의 홍수, 최후의 심판 등). 낡은 세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 묵시록적이다(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재앙이 쓸고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건설된다). 물질적인 세계. 추상-정신적인 세계. 묵시록적 테마 이용해서 물질적인 세계 파괴하고 정신적인 세계(천국) 건설하자.

신지학(종교이자 철학) : 21c가 되면 천국, 정신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추상미술은 물질적 세계 파괴하고 정신적인 세계,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유토피아론). 신지학에 기반두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너무나 빈부의 격차 심함.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꿈꿈. 러시아 사회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래서 일어남. 추상미술은 유토피아론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정신적인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 근거해서, 정신적인 세계로 탐구했다.

그림에서 빵빠레 부는 것은 승리. 정신의 승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3)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 칸딘스키 <최후의 심판> 1912

// 미켈란젤로 – 역동적,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음. 칸딘스키 – 성경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음. 최후의 심판에서 각자 느끼는 것이 다 정답. 관람자에게 해석에 무한한 자유를 준다.

5) 칸딘스키 <검은 관계> 1923 / <라오콘 군상> 고대 그리스

// 라오콘 군상은 신화의 이야기.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 해부학에 입각해서 조각이 완벽. 이 신화를 알려고 할 뿐.

한 개의 원이 라오콘 군상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한다. 한 개의 원은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를 내적 필연성. 내적으로 있는 수많은, 밝힐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정신성&내적 필연성을 표현해야 하고 그 것이 추상이다.

칸딘스키의 작품 완벽한 구도.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칸딘스키가 추구하는 것은 불협화음의 조화. 구성, 색채와 형태의 조화. 내적 필연성이 하나의 의미가 된다. 의미는 관람가들이 찾는 것.

신지학이 유토피아론이 근거가 되면서, 묵시록적인 테마를 가지고 인상 즉흥 구성의 단계로서 추상미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20c초에 유럽에서 최초로 발명된 추상미술은 사회주의 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 유토피아(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세상,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6)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16세기 / 칸딘스키 <접촉> 1924

// 칸딘스키의 이론 – 가장 기본적 형태. 원(정신,하늘) 삼각형(세속,물질) 사각형. 가장 대립되는 요소인 원(정신)과 삼각형(세속,물질)이 만났다. 일종의 조화, 화해. 마치 아담과 신의 만남처럼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 생명을 불어넣는 손가락의 만남(생명의 창조에 대단한 에너지를 보여줌).

일종의 종교에 해당될 만큼, 정신의 세계로 가득 찬 것이 추상 미술.

이탈리아, 남유럽 사람들은 주로 재현, 모방을 중점으로 뒀었다면 북유럽의 사람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해옴. 칸딘스키와 같은 화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역사와 전통과 연결 시킬 수 밖에 없다. 🡪 독일 표현주의. (청기사 그룹, 다리파 그룹) 그 의미는 재현, 모방의 리얼리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감정, 정신성을 표현하는 것. 20c초에 독일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도 추상미술이 탄생.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 검은 사각형 하나만 그려놓고 이것이 그림이다라고 전시회에 출품함. 사실주의에서 절대주의로 라는 책자 발간. 독일 표현주의가 일어나는 그 때, 1913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절대주의가 탄생. 절대주의란? 절대로 순수한 감성을 표현한다.

이 사각형은 절대로 순수한 감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

9) 엘 그레코, 십자가 책형, 16세기 / 말레비치 <검은 십자가> 1915 // 말레비치의 것은 굳이 예수를 가르키진 않는다. 절대로 순수한 감성.

절대로 순수한 감성이란???